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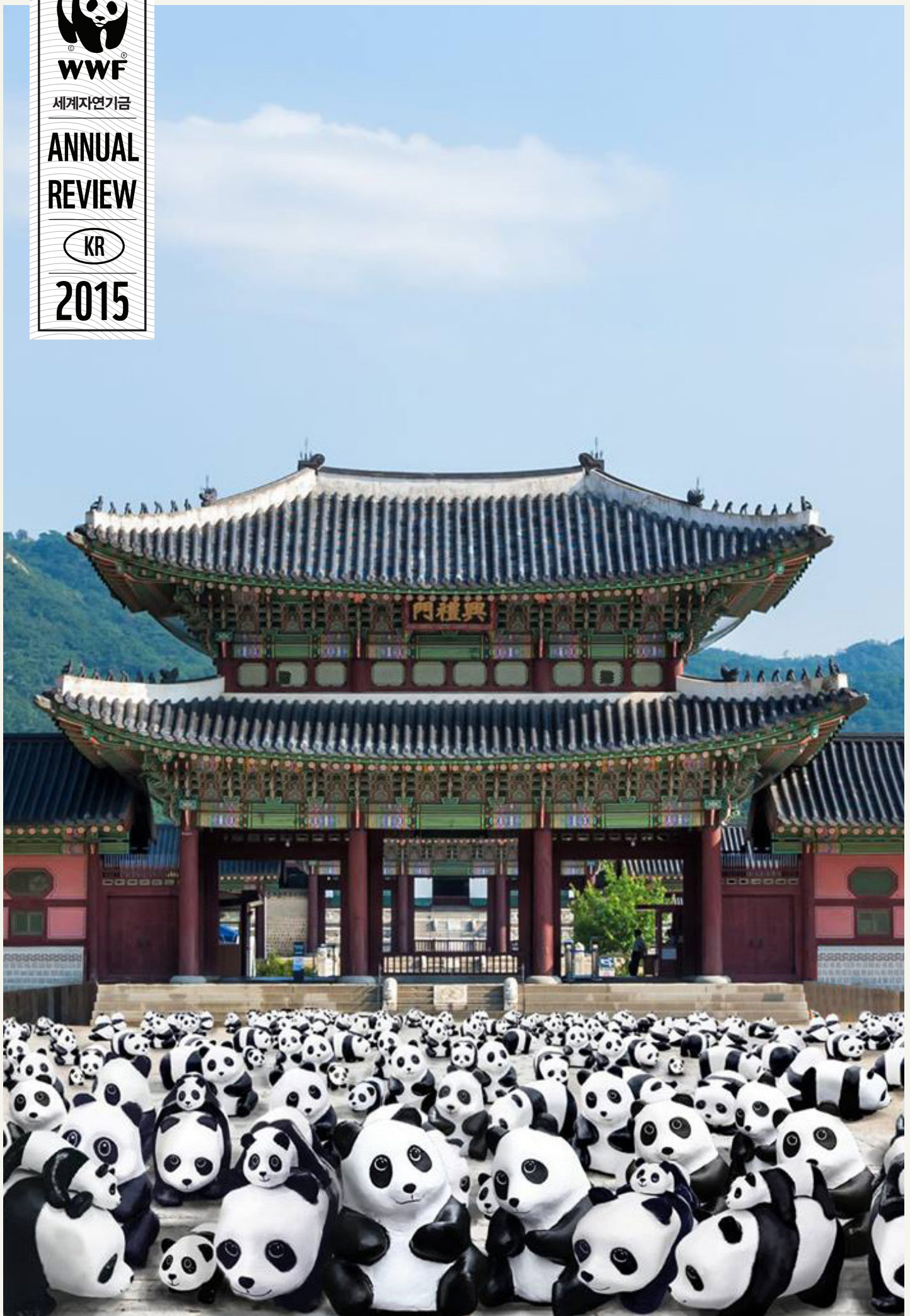
WWF

세계자연기금

ANNUAL
REVIEW

KR

2015





표지

1600+ 판다 한국전시 중 광화문

1600+ 판다는 전 세계에 남아있는 야생 판다의 개체수가 1,600마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리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다를 재활용 종이의 뻬뻬에 마쉬 수공예 작품으로 탄생시킨 아티스트 파올로 그랑종(Paulo Grangeon)과 WWF의 협업으로 2008년부터 세계 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목의 "+"가 의미하는 바는 지난 10년 간 대형 야생 판다의 개체수가 증가하여 1,800마리를 넘게 된 사실뿐만 아니라 판다를 포함한 야생동물 보전의 필요성과 그 성과를 축하하기 위함입니다. 1600 판다전시는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스위스 등 8개 나라를 거쳐 한국에 9번째로 지난 5월부터 약 2달간 진행되었습니다.

© AMHERST / K-IMAGES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우리의 푸른 별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자원의 이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도하며,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 절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년간 환경보전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공식적으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가 설립되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 1986 판다도형WWF- World Wide Fund For Nature 세계자연기금 (전 World Wildlife Fund 세계야생동물기금)

® "WWF" 는WWF 의 등록상표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세계자연기금

Panda symbol © 1986 WWF - World Wide Fund for Nature (formerly World Wildlife Fund)

® WWF Registered Trademark



목 차

대표 인사말	4
지구 그리고 우리의 미래	8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소개	9
세계자연기금의 미션	10
WWF-Korea 활동 리뷰	12
Together Possible: 파트너십과 후원 현황	26
2015년 회계 보고	30
향후 계획	32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 인사말

© WWF / Richard Stonehouse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가 한국내 자연보전 활동에 한 획을 긋고 있는 이 시점에 신임 CEO로 함께 하게 되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습니다. WWF의 보전 활동은 세계적으로 크게 신뢰받고 있으며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리적 경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힘을 모아 보전 현안의 해결책을 모색해 왔습니다.

WWF가 지난 54년간 놀라운 보전성과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그 규모와 시급성 면에서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및 자원 남용 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규모로 시급을 다루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 증가와 국가들의 초고속 성장으로 인류는 급격한 전환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장기에는 자연환경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며 현재 지구에 매장된 자원만으로는 인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 WWF-Korea의 협력 노력과 환경 보전에 열정적인 한국 국민의 힘을 더함으로써 한국이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경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처음으로 발간된 한국어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 2014)’는 우리가 현재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 1만여 종을 선별해 평가하는 지구생명지수(Living Planet Index)는 1970년에서 2010년까지 52% 하락했습니다. 반면 인류의 자연자원 수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인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마치 지구 자원이 무한한 것처럼 생활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인류는 지구 1.5개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지구 2.5개 분량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단 하나뿐이므로 보다 현명한 자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에 나타난 현실은 암울하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문제 인식이 높고 해결을 위한 자원 조달, 연구, 혁신 및 기타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희망도 생깁니다. 위기는 세계적 규모이지만 그 해결책은 지역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지구의 새로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고방식과 전례 없는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는 기업에서 쌓은 경험을 통해 파트너십의 힘을 믿게 되었으며, 2015년의 성과를 토대로 한국에서 새로운 협력의 선례를 만들고자 합니다. WWF-Korea는 민간부문이 원자재 생산 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이행하는 데 있어 긍정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 NGO 및 커뮤니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에 최적화된 보전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WWF-Korea의 협력 노력과 환경 보전에 열정적인 한국 국민의 힘을 더함으로써 한국이 향후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환경 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합니다. 한국인 스스로의 힘으로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 수 있으며 우리는 이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입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대표 윤세웅



© Michèle Dépraz / WW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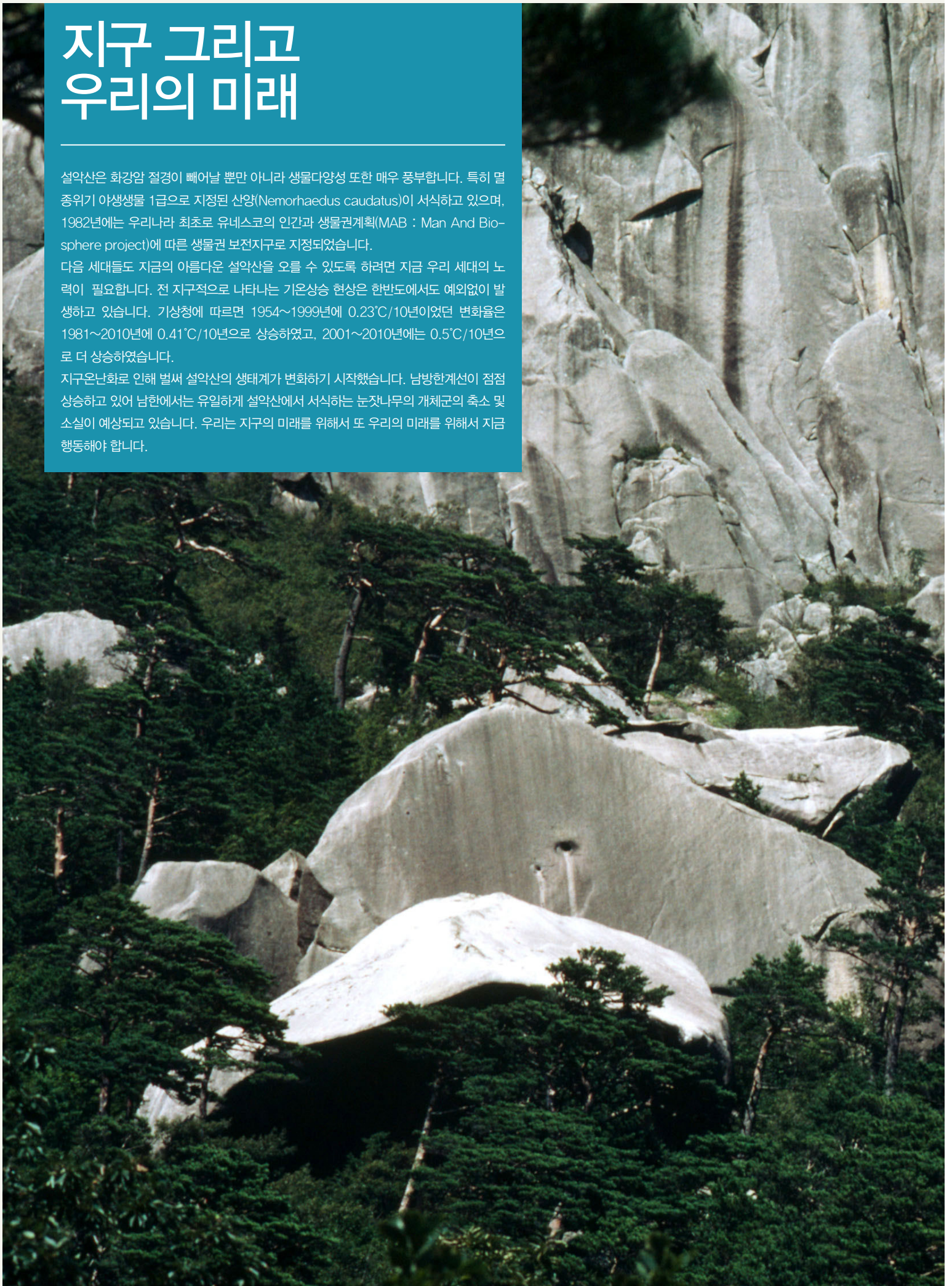
유엔은 1990년 한국을 '물 부족 국가'로 분류하였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2년 보고서에서 2050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물 스트레스 (water stress) 지수'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물 스트레스 지수란 물의 총 수요량을 1년간 쓸 수 있는 물 가용량으로 나눈 수치로, 물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나타냅니다.

지구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설악산은 화강암 절경이 빼어날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또한 매우 풍부합니다. 특히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으로 지정된 산양(*Nemorhaedus caudatus*)이 서식하고 있으며, 1982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유네스코의 인간과 생물권계획(MAB : Man And Biosphere project)에 따른 생물권 보전지대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음 세대들도 지금의 아름다운 설악산을 오를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 우리 세대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는 기온상승 현상은 한반도에서도 예외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1954~1999년에 0.23°C/10년이었던 변화율은 1981~2010년에 0.41°C/10년으로 상승하였고, 2001~2010년에는 0.5°C/10년으로 더 상승하였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벌써 설악산의 생태계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남방한계선이 점점 상승하고 있어 남한에서는 유일하게 설악산에서 서식하는 눈잣나무의 개체군의 축소 및 소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 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행동해야 합니다.





© Michele Dapraz / WWF

지구 그리고 우리의 미래

현재 인류의 자연자원 수요는 지구의 자원 재생능력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2014년판 한국 기후변화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한반도의 기후 및 해수면은 다른 지역 대비 약 3배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 공급, 수산자원, 비옥한 토양 등 생태서비스의 60%는 인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야생동물 개체수는 지난 40년간 평균 52% 감소했습니다.



전 세계 담수 수요는 2030년경 현재 공급량을 4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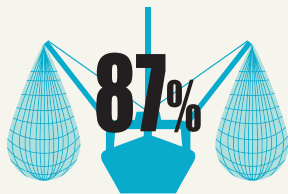
인류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지구 1.5개에 해당하는 자원이 필요합니다.



2014년은 역사상 가장 기온이 높은 해로 기록됐습니다. 한반도는 100년 내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2013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이전 80만 년을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해양 수산자원의 87%는 남획 또는 최대한계수준으로 어획되고 있습니다.



산림파괴를 멈추지 않으면 2050년 까지 2억3,200만 헥타르의 산림이 사라질 것입니다.



전 세계 인구의 1/9은 기아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WWF가 제시하는 '지구는 하나(One Planet)라는 관점'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야생동물뿐만 아니라 인류의 식량, 깨끗한 물, 건강 및 생계를 확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 같은 생활방식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영감의 원천이 됩니다. 이에 따라 WWF-Korea는 중요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도록 도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재계 리더와 주요 인사, 정책 입안자 및 대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WWF-Korea는 이를 해결할 역량, 열정, 의지를 갖추고 있으나 여러분의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WWF-Korea

세계자연기금(WWF)은 세계적인 비영리 환경보전기관으로, 세계 100여 개국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500만 명 이상의 후원자들과 함께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WWF는 우리의 푸른 별 지구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재생 가능한 자연 자원의 이용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유도하며, 환경오염 및 불필요한 소비 절감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지난 10년간 환경보전 활동을 해왔으며, 2014년 공식적으로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가 설립되었습니다. 50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WWF-Korea는 지역적,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큰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분야 과학자, 정책 전문가, 법률 및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이 WWF-Korea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역 사무소의 지원을 통해 현지 프로젝트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적인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천함으로써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WWF-Korea는 이를 위해 한국 국민이 자연에 가하는 압력을 줄이고 한국의 생물다양성 보전하는 데 힘을 모으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2020년 까지의 주요 중점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귀중한 해양 생태계를 보전
- 인류의 존속의 위협이 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 및 생태발자국 감축
- 멸종위기의 생물종을 보전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일이 해양 및 육상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감소시키고, 생태발자국을 감축시키며, 또 반대로 우리의 바다와 숲을 보전하는 일이 멸종위기 생물종을 보전하는 일, 탄소 흡수를 통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중점사업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WWF-Korea 이사회

WWF-Korea는 투명하고 공정한 기관 운영과 단체의 정체성에 적합한 활동을 하기 위해 매년 2회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이사회에서는 내규 및 회계 뿐 아니라 WWF-Korea 활동의 방향성, 세부 계획을 검토하는 등 미래 계획까지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사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장	이사	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 폴 페덱 · 양인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토퍼 헤일즈 · 이장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희철

세계자연기금의 미션 Mission

기후변화가 인류와 생태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해수면 상승, 가뭄, 홍수, 태풍, 폭염 등의 현상을 초래합니다. 이는 식량생산을 방해하고 중요 생물종, 서식지 및 생태계를 파괴시켜 전세계 최빈층 및 취약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위협할 것입니다.

세계자연기금은 지구의 자연환경 악화를 멈추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생물다양성
- 생태발자국

첫째, 미래 세대를 위해 지구의 생물망(web of life), 즉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구 생물다양성 보전, 특히 중요한 지역 및 생물종을 보호하는 데 전략적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 즉 생태발자국을 줄이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생명유지에 필요한 토양, 물 및 공기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를 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2050년 글로벌 생물다양성 목표	2050년까지 생태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보전하여 더욱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
2050년 글로벌 생태발자국 목표	2050년까지 인류의 글로벌 생태발자국이 지구의 재생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자연자원을 공정하게 공유하도록 할 것

우리는 협력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인 문제이지만, 한국의 생태발자국을 줄이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등 지역차원에서의 노력을 통해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지속가능성해결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세계적 영향력을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의 접근법

WWF-Korea는 한국 및 전 세계에서 협력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가 직면한 환경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심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데이터 분석, 전략적 해결책 강구 및 실행에 힘쓸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활동은 다음을 목표로 합니다.

- 지역적, 세계적, 독립적, 다문화적 활동으로,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성격을 가질 것
- 문제 해결을 위해 최상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하고 모든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
- 한국 및 국제적 차원에서 대화를 추구하되 불필요한 갈등은 지양할 것
- 현장 프로젝트, 정책 이니셔티브(initiative), 역량강화 및 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보전 해결책을 마련할 것
- 지역 문화 및 경제적 필요를 존중하며 현장 프로그램 계획 및 이행에 지역사회 및 주민 참여를 도모할 것
-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 내 기구, 정부, 기업 및 지역사회와의 파트너십 확립에 힘쓸 것
-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활동을 관리하고 한국 내 가장 엄격한 회계책임 기준에 따라 기부금을 사용할 것



보전활동의 주안점

WWF-Korea는 지역 및 역내 활동을 통해 아름다운 생태계의 균형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시급한 문제에 집중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해양 및 어업

WWF-Korea의 해양보전 활동은 해양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회복력 있고 생기 넘치는 바다, 지속 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우리 바다를 위해 해양생태계와 해양자원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히 어업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대 어업국가에 속하지만 어업 관행은 양적 성장에 집중해왔습니다. 이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어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해야 합니다. WWF-Korea는 한국을 모범적인 지속가능한 어업국으로 만들기 위해 정부, 민간부문, 학계 및 NGO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기후 및 재생에너지

WWF-Korea의 기후 및 재생에너지 이니셔티브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강한 저탄소 미래를 목표로 합니다. 특히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재생 에너지의 보급을 확대시키기 위해 공공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재생 에너지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과 프로젝트, 협력활동을 지지하며, 2050년까지 100%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를 건설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풍력, 조력, 태양광 등 청정 재생 에너지원 중심의 효율적인 에너지 체계 실현을 위해 노력중입니다.



환경오염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WWF-Korea는 개발의 영향을 최소화 하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이 모든 차원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WWF 전 세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오염의 원인 및 오염으로 인한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모범적인 관행 이행에 국제적 협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지속가능한 도시

도시에서 사는 주민들이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70% 이상을 배출하는 상황에서 기후친화적인 미래를 위한 도시의 행동 및 지지를 이끌어 내도록 세계환경도시상(Earth Hour City Challenge)을 이니셔티브 했습니다. WWF-Korea는 한국 도시들이 대회에 동참하는 것을 독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시장 변화

WWF-Korea는 기본 원자재의 생산방식을 개선하여 기업이 사회적, 경제적 효율은 달성하면서도 환경적 영향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WWF는 전 세계 70억 소비자의 구매 습관과 15억 생산자의 생산관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원자재 공급망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대규모 유통회사, 브랜드회사, 제조회사, 가공회사, 무역회사 및 은행)과 협력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와 같은 접근법을 통해 글로벌 원자재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위기에 처한 서식지 및 생물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멸종위기종

WWF-Korea는 세계에서 가장 상징적인 멸종위기종의 개체 수 안정화 및 증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물종은 지역 생태계의 건전성을 보여줍니다. 한 종이 멸종하면 이는 전체 생태계에 타격을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멸종위기의 유일무이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전책을 지지합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 활동 리뷰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WWF-Korea)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에 해당하는 2015 회계연도를 마감하며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보고서를 발간하고,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캠페인으로 대중인식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 기업, 시민 단체들과의 협력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 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의 영향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자연자원의 보전, 더 나은 생산과 현명한 소비 장려 등 함께 타개책을 찾아야 할 의제들이 많습니다.



© Stéphane Mauris / WWF

지구생명보고서 LIVING PLANET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 요약본 국문 발간

WWF는 1998년부터 '지구생명보고서(Living Planet Report)'를 격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세계생태발자국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 GFN) 및 런던동물학회(Zoological Society of London)와 협력하여 인간 수요가 지구의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는 보고서입니다. 지구생명보고서는 2014년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한국은 1인당 제품 및 자원 소비량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 모든 사람이 한국인의 평균 생활방식대로 1년간 생활한다면 인류는 2.5개의 지구자원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가 현재와 같은 자원을 누리기 위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예측결과입니다. 각 개인의 '생태발자국'은 주로 거주국가, 소비 제품 및 서비스의 양, 해당 제품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용된 자원 및 생성된 폐기물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인구 백만 명 이상의 완전한 자료 수집이 가능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1인당 생태발자국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31위를 차지했으며 일본은 42위, 중국은 75위를 기록했습니다.

지구생명보고서의 한국어판 발간을 위해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 2014'를 총괄한 세계자연기금 인터내셔널의 리처드 맥레란(Richard McLellan) 생태발자국 국장이 직접 한국본부를 찾았습니다. 리처드 맥레란 국장은 2014년 10월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WWF 지구생명보고서 2014' 발표 기자회견에서 보고서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한국의 37개 언론 매체가 72건의 기사를 보도하였으며, '환경 TV'도 보고서의 발간을 보도하였습니다.



© WWF-Korea



'지구생명보고서 2014' 국제 포럼 개최

이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WWF-Korea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처음으로 국제 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WWF-Korea는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을 패널로 섭외하여 각 분야가 생각하는 한국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장무 세계자연기금 이사 겸 기후변화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이보 드 보어 사무총장,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최영수 과장, 주한 스위스 요르그 알 레딩 대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생명공학과 조기성 교수, 삼성안전환경연구소 이효수 차장, 세계자연기금 리처드 맥레란 생태발자국 국장이 패널로 참여하였습니다. 포럼에는 3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패널들의 견해를 듣고 질문을 하는 등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 WWF-Korea

어린이 서적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Our Beautiful Earth)' 발간

국제 포럼을 통해 연령, 교육, 소득수준 및 전문지식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의 대중에게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의 메시지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과 어린이, 선생님들에게 지구생명보고서 2014의 내용을 알리기 위하여 아동을 위한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 즉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Our Beautiful Earth)'도 발간했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해 국문 및 영문으로 발간된 이 책자는 어린이들에게 지구 자원의 소중함과 '하나뿐인 지구(One Planet) 관점'의 생활방식을 알려 줍니다. 판다와 학 그리고 가슴반달곰을 주인공으로 한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는 어린이들은 물론, 환경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재미있게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10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약 3천개 초등학교에 온라인을 통해 무료로 배포되었습니다. 해당 어린이 서적은 온라인(http://issuu.com/wwf-korea/docs/cartoon_kr)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뿐인 지구(One Planet)' 이니셔티브

인류는 현재 지구 생태계가 보충할 수 있는 수준을 50%나 초과해 소비하고 있습니다. WWF의 '하나뿐인 지구(One Planet)'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생활 및 비즈니스 방식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지구생명보고서와 하나뿐인 우리의 지구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뿐인 지구 이니셔티브는 지속가능한 삶, 더 나은 삶을 위해 식량, 의복, 주거, 에너지, 건강, 교육, 이동, 여가 등 인간 욕구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충족시킬 방법을 찾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지표를 모아 지속가능성에 대한 전체론적 접근법을 이루는 것입니다.



환경정책활동 참여 및 의제 제기 POLICY & ADVOCACY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원

WWF-Korea는 정책 및 의제 제기 활동의 일환으로 UN 지속가능 개발목표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 o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전문가 그룹(Expert Group on Financing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ost-2015 개발 의제 고위급 회의(UN High Level Panel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및 관련 국가/지역 협의 등 'Post-2015 정부간 협상 및 관련 절차'에 참여하여 환경, 사회, 경제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가능 개발 비전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위한 목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UN의 지속가능 개발목표는 총 17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가 개발을 논할 때, 환경적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인 번영까지도 고려하도록 장려하는 개발목표입니다. 각국의 WWF는 매달 UN에서 각국의 정상들과 3년간 논의해왔습니다. 한국은 UN 경제사회이사회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개발목표의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국 환경부 및 외교부, 주 UN 한국 대표부에 공식 서한을 보내고 회의를 진행하는 등 Post-2015 의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WWF-Korea가 한 해 동안 참여한 정책 회의

1. UN 지속가능개발목표 (미국 뉴욕, 2014년 7월, 2015년 1월, 2015년 5월)
2. 역량강화를 위한 정책 워크숍 (스위스 제네바, 2014년 11월)
3. 생물다양성협약 (한국 평창, 2014년 11월)
4. 녹색기후기금 이사회 회의 (한국 송도, 2015년 3월)
5. 제7차 세계물포럼 (한국 대구/경주, 2015년 4월)



한국에서 열린 국제 포럼 참여

자노스 파스터(Janos Pasztor, 왼쪽 사진) 현 UN 기후변화 사무차장보는 2014년 9월 WWF 인터내셔널의 보전국장으로서 한국을 방문해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포럼의 패널로 참여했습니다. 빈곤을 줄이면서도 환경적인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양질의 직업을 창출하는 성장 모델은 무엇인가에 대해 WWF의 관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제7차 세계물포럼 참여

제7차 세계물포럼은 4월 13~17일 경주와 대구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WF 네트워크의 관계자 약 40명이 고위급 회의, 연설, 부속행사 주최 및 전시부스 설치 등의 활동을 통해 물정책 관련 문제 논의에 참여했습니다. WWF 인터내셔널의 올란 다 카카바트세(Yolanda Kakabadse) 회장(왼쪽 사진)도 연사 및 패널로 참석해 주요 국제환경기구 대표로서 전 세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물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 각 나라의 정부 대표 및 기업, 다른 NGO와 활발히 의논했습니다.



© WWF-Korea



© WWF-Korea

해양 보전 MARINE CONSERVATION

WWF-Korea는 지난 1년 동안 최상의 과학적 증거 및 자료를 분석하여 한국 어업부문 및 해양 거버넌스 (governance)를 이해함으로써 지속가능한 해양 및 어업을 위한 변화를 도모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요 어업국 및 수입국

한국의 연간 평균 어업생산량은 300만 톤 이상으로 세계 10대 어업생산국에 속합니다. 참치 어획량도 세계 5위 내에 들고 있습니다. 수입에 있어서도 주요 수산물 수입국(가치 기준)으로, 그 양은 미국, 중국, 일본, EU 다음으로 큰 규모입니다.

불법 어획 개선

2015년 초 한국은 미국 및 EU의 '불법, 비보고 및 비규제(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어업국' 지정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와 NGO가 어업활동의 투명성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원양어선의 IUU 어업을 막기 위해 '원양산업관리법'을 개정했습니다. WWF-Korea는 한국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어업정책 변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이치(Aichi) 목표 11번

2020년까지 육지와 내수면의 17%, 바다와 해안의 10% 이상, 특히 생물 다양성 및 생태계 서비스의 주요 구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이를 생태학적 대표성을 가진 연계 시스템 및 기타 효과적인 보전 수단으로 공평하게 관리하고 보다 넓은 육지 및 해양에 통합되도록 할 것.

해양보호구역

한국 영해(EEZ 포함, 443,000km²) 중 단 1.2%(5,025km²)만이 해양보호구역(MPA)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낮은 해양보호수준(1.2%)으로 인해 한국은 MPA 지정에 관한 아이치(Aichi) 생물다양성 목표 11번 (2020년까지 10% 확보) 달성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WWF-Korea는 생물다양성 및 경제적 이익을 위한 MPA 확대에 힘쓸 계획입니다.

WWF-Korea의 방향성

WWF-Korea는 해양 및 해양 자원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하지만 이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섬세한 해양 생태계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2015년 '한국 해양수산 기초조사 보고서(Fisheries Sector Assessment)' 개발, 수산물 인증 촉진 등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한국 수산업계와의 대화에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한국 해양수산 기초조사 보고서' 주요내용

- 집중 남획으로 인해 한국 EEZ 내 수산자원량은 1950년대 이후 43% 감소했습니다.
- 한국의 1인당 수산물 소비량은 평균 50kg 이상으로 전세계 평균의 3배에 해당합니다.
- 한국에서는 남획 및 불법어획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며 보다 엄격한 통제수단이 필요합니다.
- 수산물의 이력추적이 매우 어려워 해양 보전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야 합니다.
-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 EU 다음 가는 세계 5위의 수산물 수입국이며, 수입량은 세계 평균의 3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WWF는 자연산 수산물에 관한 세계해양책임관리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양식 수산물에 관한 세계양식책임관리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 등 인증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인증이 수산업의 지속가능성 추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WWF-Korea는 기업들이 MSC 및 ASC 인증 등 책임감 있게 관리되는 어장 및 양식장의 수산물만 사용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물 확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어부, 농부 및 가공업체부터 상인, 유통업체 및 식당에 이르기까지 수산물 업계 관계자들을 독려함으로써 산업계 지도자들이 문제해결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협력을 통해 전 세계 해양 건강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수산물 공급이라는 목표 달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 WWF / Hélène Petit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 EARTH HOUR

WWF-Korea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현안에 대한 대중 인식 증진 및 생태발자국 감축을 위한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에 국민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구촌 전등끄기 캠페인은 WWF가 주도하는 글로벌 기후변화 캠페인입니다. 매년 특정일에 개인, 기업, 정부 및 커뮤니티가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 조치 및 사회적 노력을 지지하는 상징적 의미로 한 시간 동안 소등하는 행사입니다. 이 캠페인은 매년 3월 마지막 토요일 밤 8시 30분에서 9시 30분까지 실시됩니다.



© WWF-Canada / Jeremiah Armstrong

지구촌 전등 끄기 디지털 참여

WWF-Korea는 '블루 스카이 앱(Blue Sky App)'이라는 디지털 앱을 통해 2015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을 활성화하기도 했습니다. 사용자는 앱을 다운로드받아 야외사진을 찍은 후 회색 하늘을 터치해 파란색으로 칠하고 이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했습니다. '우리는 푸른 하늘을 희망합니다. 국내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지지합니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0,500

앱 다운로드

749,160

소셜 미디어 참여

37 M

미디어 노출



지역사회의 참여

WWF-Korea는 한국 내 지역사회가 공식적으로 전등끄기 시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독창적 노력의 일환으로 학교, 지역사회 및 기업에 지구촌 전등 끄기 툴킷(Earth Hour Toolkit)을 제공했습니다. 이 툴킷에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지구촌 전등끄기를 지키고 홍보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침이 들어 있습니다.

지구촌 전등끄기 학생 그린 멘토 특강

서울 시정부 및 환경교사모임의 지원으로 하루 일정의 그린 멘토 특강이 서울시청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해당 행사에는 600명 이상의 고등학생이 참여했으며 업계 전문가들이 친환경 분야 직업의 장점을 설명하는 특별 강의를 있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의 공식 지구촌 전등 끄기 행사

서울시와 공동 개최한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는 저탄소 발자국 엔터테인먼트, 커뮤니티, 기후변화 대응조치의 밤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서울 및 기타 지역 학생들이 맨스 플래시몹, 업사이클(upcycle)된 우유병 손전등 등의 독특한 지구촌 전등끄기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부산, 대구 등의 도시도 자체적인 지구촌 전등끄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세계환경도시상 EARTH HOUR CITY CHALLENGE

세계환경도시상(EHCC)은 국제적인 환경도시를 만들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입니다. 2015년 17개국 166개의 도시가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WWF는 이 대회를 통해 전 세계 도시들에게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롤모델이 될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에서의 2014~2015년 EHCC 활동은 WWF-Korea와 이클레이 한국사무소(ICLEI Korea)가 함께 진행했습니다.



© City of Seoul

서울시는 '2015년 글로벌 최우수 환경 도시(Global Earth Hour Capital 2015)'로 선정되었습니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포괄적 접근법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의지로 국제 전문가 평가단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탄소 배출량 감감을 위해 서울시는 주민의 태양광 사용 증가를 위한 현실적 예산 할당, 친환경 연료를 통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버스전용차선 확대 및 카 셰어링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서울시는 동남아시아 및 전 세계 고속성장 도시의 롤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1,000만 톤 저감 및 전력지급률 20%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마련한 야심찬 이니셔티브가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강릉, 수원, 여수는 국내에서 세계환경도시상에 참여한 7개의 도시 중 우수한 도시로 꼽혀 국내 환경도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도시의 역량 활용

WWF-Korea는 세계환경도시상 시상식에 덧붙여 서울시청에서 '글로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도시의 역량 활용(Unlocking the Power of Cities to Address the Global Climate Crisis)' 행사를 주최해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도시의 역량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오전 행사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소개말로 시작되었으며, 오후에는 WWF가 전 세계 도시 지속가능성 분야의 권위자들이 우리가 당면한 세계 기후 위기에 대한 도시 차원의 혁신적 해결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 WWF-Korea / Shin Hyun Kyung

1600+ 판다 프로젝트 1,600 PANDAS+ KOREA



© www.1600pandas.kr



© www.1600pandas.kr

‘1600 판다’는 2008년 WWF 프랑스 본부의 35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프랑스 아티스트 파울로 그랑종(Paulo Grangeon)과의 협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다양한 국가 및 지역에서 100회 이상의 전시를 가졌습니다. 1,600마리의 빠삐에 마쉐 판다로 구성된 이 프로젝트는 전세계 야생 판다의 개체수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새로운 투어 ‘1600 판다+’는 지난 10년간 야생 판다의 개체수가 17% 가까이 증가하여 1,864마리를 넘게 된 성과뿐 아니라, 야생 대왕판다 보전에 대한 개선된 대중의 인식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투어는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엄마와 아기’ 빠삐에 마쉐 판다들은 야생 대왕판다 개체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축하하는 동시에, 멸종위기종이기도 한 판다가 직면한 위협 및 과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지지하는 뜻을 기념하고자 특별히 만들어졌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엠허스트, 롯데, ARR과 함께하였습니다.



플래시몹 장소

광화문 광장	서울광장	강남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서울 N 타워
청라호수공원	국립현대미술관	수원시립미술관	대전시립미술관	대구문화예술회관
부산시민공원	영도대교	사직종합운동장	광주시립미술관	석촌호수공원 & 롯데월드그든

북서울미술관 개최 <광고는 메시지>전 참여

WWF-Korea는 2014년 12월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이 개최한 2014서울포커스 <광고는 메시지>전에 참여하여 WWF의 공익광고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미지와 구호를 통해 메시지를 소통하는 힘을 강조한 전시였습니다. WWF의 공익광고는 그간 많은 찬사를 받아왔고, 전 세계적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WWF는 다수의 공익 광고를 만들기 위해 국제 광고 대행사인 오길비앤매더(Ogilvy and Mather)와 함께 일해왔고, 이 광고들은 타임지, 뉴스위크, 비즈니스위크, 내셔널 지오그래픽과 같은 글로벌 미디어에 게재되었습니다. 양 기관의 중요한 협력은 세계자연기금으로 하여금 대중에게 영향력 있는 정보를 의미와 설득력 있는 매체로 전달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전시된 광고는 우리가 살고 있는 아름답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취약해져 가는 지구를 보전하자는 의식 재고의 중요성을 메시지를 통해 강조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 WWF-Korea



© WWF-Korea



© WWF-Korea

시민과의 소통은 WWF-Korea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는 시민의 관심과 실천 없이는 달성 불가능합니다. 생활방식을 약간 바꿈으로써, 조금 더 현명한 소비를 고민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좀 더 빨리 달성할 수 있습니다. WWF-Korea가 함께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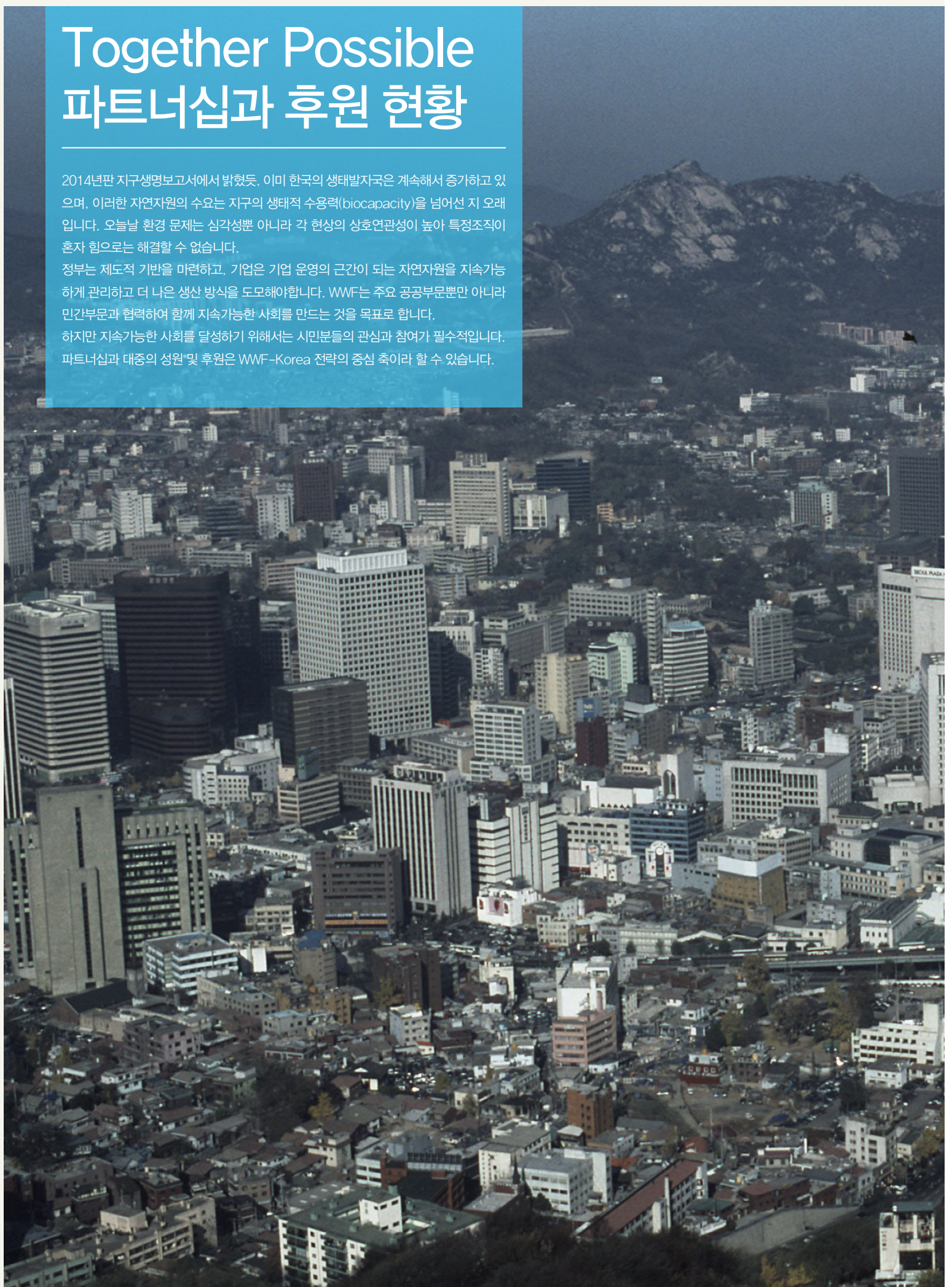
Together Possible

파트너십과 후원 현황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에서 밝혔듯, 이미 한국의 생태발자국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연자원의 수요는 지구의 생태적 수용력(biocapacity)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오늘날 환경 문제는 심각성뿐 아니라 각 현상의 상호연관성이 높아 특정조직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업 운영의 근간이 되는 자연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고 더 나은 생산 방식을 도모해야 합니다. WWF는 주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함께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지속가능한 사회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파트너십과 대중의 성원 및 후원은 WWF-Korea 전략의 중심 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 PARTNERSHIP



2014년 3월 28일, 한국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해 WWF-Korea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환경부 정연만 차관과 서울특별시 김상범 부시장이 참석했고, WWF 인터내셔널의 마르코 램베르티니 사무총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개소 이후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학교, 다른 시민사회 등 다양한 관계자들과 협력을 맺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탄소 배출량 감소를 위한 서울시의 접근법은 주민의 태양열 사용 증가를 위한 현실적 예산 할당, 친환경 연료를 통한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버스전용차선 확대 및 카 셰어링 등 매우 다양합니다. WWF-Korea는 세계적으로 도시의 탄소발자국 저감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서울시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다음 이니셔티브를 통해 WWF-Korea의 보전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구촌 전등 끄기
- 세계환경도시상 참여
- Seize Your Power(재생에너지 투자 촉구) 캠페인
- 서울시에 WWF-Korea 사무소 유치

한국외국어대학

한국외국어대학교(HUFS)는 1954년 외국어 교육을 통해 모국의 근대화와 세계 번영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60여 년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근간으로 학생들이 탄탄한 외국어 실력을 바탕으로 개성을 개발하고 리더십을 길러 한국과 세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역사와 배경을 가진 한국 외대는 WWF-Korea의 존재와 활동을 한국 사회에 알리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의 번역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WWF-Korea를 지원했습니다.

- 지구생명보고서
- 시장변환 이니셔티브 보고서
- 월간 '판다 메일' 뉴스레터

WWF 국제환경포럼(HUFS-WWF International Environmental Forum)을 공동 주최하여 동시통역을 제공했고, 2014년판 지구생명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울촌

법무법인(유) 울촌은 2015년 영국 파이낸셜타임즈(FT)가 선정한 '가장 혁신적인 한국의 로펌'으로 WWF-Korea의 공식 설립 이전부터 법률자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울촌은 WWF-Korea의 법인 설립과 업무 진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지침 등을 제공함으로써 WWF-Korea가 울해와 같이 높은 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공헌했습니다.

롯데

롯데는 경제, 사회, 윤리,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롯데는 WWF-Korea의 설립 때부터 주요 파트너가 되어왔습니다. 롯데백화점과는 어린이 환경 미술 대회, 환경 서적 제작을 진행했으며, 롯데물산의 1,600 판다+ 한국 투어 후원으로 어린 아이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대중을 타깃으로 하는 활동을 함께했습니다. 롯데는 WWF-Korea와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헤럴드

(주)헤럴드는 최근 10년 간 지속적인 도전을 통해 친환경라이프스타일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주)헤럴드와 WWF-Korea는 헤럴드의 자회사이자 친환경 식품 기업인 올가니카를 통해 소비자에게 지속가능한 식품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3년간의 MOU를 체결했습니다. 헤럴드와 올가니카는 2016 회계연도에 예정된 '한국 생태발자국 이니셔티브(Korea Ecological Footprint Initiative)'에 대한 홍보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HSBC

HSBC의 지속가능성 이니셔티브는 기업 역사와 전통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HSBC는 특히 교육 및 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2015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의 훌륭한 후원 파트너로서, 그린 멘토 특강을 재정적으로 지원했으며, HSBC Korea의 지속가능성 부서 이승훈 차장이 직접 멘토로서 학생들을 위한 강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다국적 보험사로 자동차, 장기 및 상업 보험, 기업 리스크 관리 및 연금보험 분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에 3년 연속 편입된 삼성화재는 2015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 후원기업으로 참여했었습니다.

코카콜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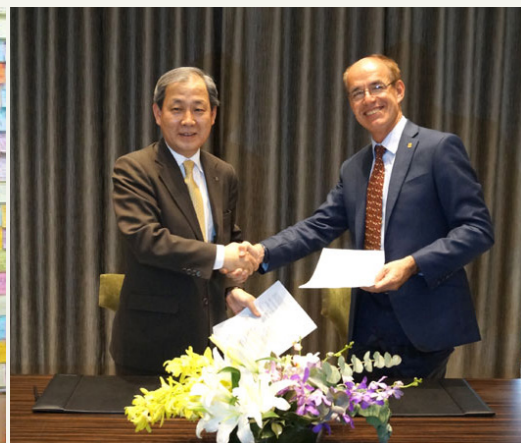
코카콜라는 지구촌 전등 끄기의 오래된 후원기업으로 2007년부터 글로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WWF-Korea는 2015년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을 위한 블루 스카이 앱(Blue Sky App) 개발 및 배포를 위해 코카콜라와 협력 하였습니다.

NewKit

NewKit은 한국의 디자인회사로 WWF-Korea의 보전활동에 대한 인식 증대 및 기금 모금을 위해 동물 주제로 팔찌를 만들었습니다. WWF-Korea는 디자이너의 창의성과 생물종 보전이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대중에게 전달 하고자 합니다.

(사)에코맘코리아

에코맘코리아는 청소년, 학생, 부모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환경 및 환경 건강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는 비영리 단체로 WWF-Korea가 주최하는 지구촌 전등 끄기 캠페인을 비롯,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한 환경인식 고취, 환경 교육용 책자 홍보 등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 WWF-Korea

2015년 회계 정보 FINANCE IN FY2015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7월에 시작하여 그 다음해 6월 30일에 종료됩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의 2014년 회계연도(2014년 4월부터 6월까지)와 2015년 회계연도(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총 수입과 총 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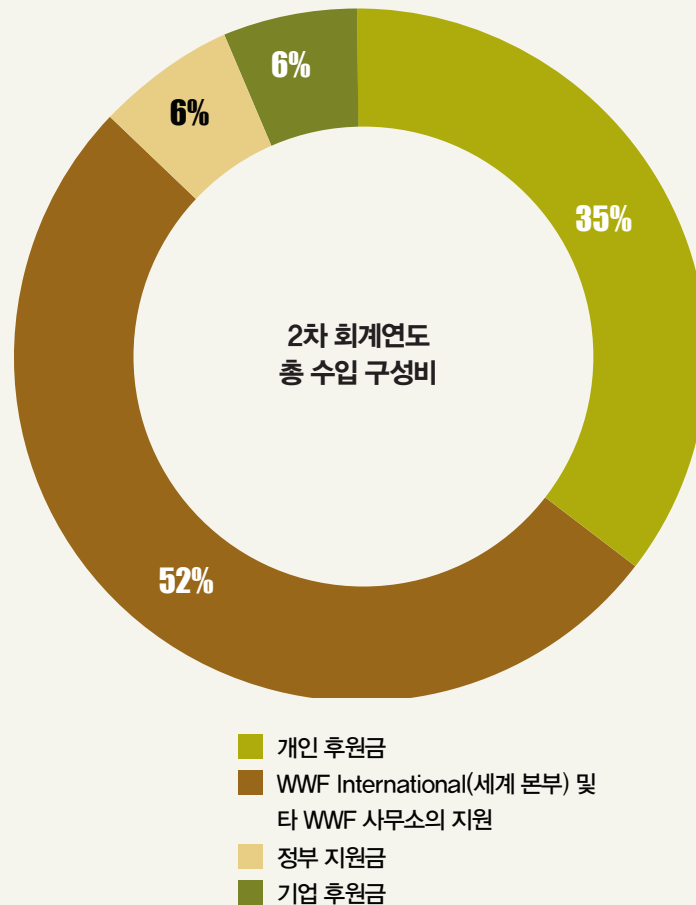
수입

2014 회계연도

2014 회계연도에서의 총 수입은 6,717,368원 입니다.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는 4월에 설립되어 2014 회계연도는 총 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때 총 수입의 66%는 당시 외화로 보유하고 있던 설립 자본금이 원화에 비해 강세를 보임으로서 발생한 외환차익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나머지 44%는 개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았습니다.

2015 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에서의 총 수입은 1,148,291,182원 입니다. 2년차 회계연도는 총 12개월이었으며, 전체 후원금에 대한 비율은 WWF 본부로부터의 지원금이 52%, 개인 후원금이 35%, 정부 지원금과 기업 후원금이 각각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다양한 보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WWF 본부 및 타 사무소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역시 보전 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기부받은 개인 후원금이 그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와 비교해 볼 때 안정적으로 보전 프로그램을 수행할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출

2014 회계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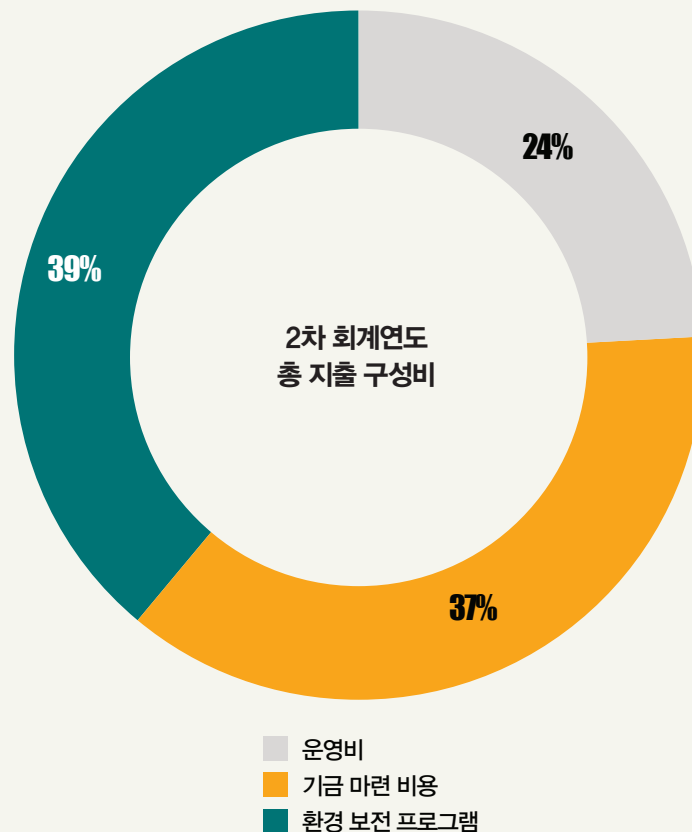
2014 회계연도에서의 총 지출은 296,337,681원입니다. 설립 초기의 운영비 및 설립 후 자립을 위한 후원 기금 마련에 각각 54%, 46%의 지출이 있었습니다. 설립 초기 3개월간의 기간인 만큼 앞으로 보전 프로그램들을 수행할 바탕을 구축하기 위한 지출이 발생하였습니다.

2015 회계연도

2015 회계연도에서의 총 지출은 1,870,557,554원 입니다.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 사이에 진행한 다양한 환경 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이 3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 회계연도와 비교해 볼 때, 보전 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비율이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기금 마련 비용이 37%, 운영비가 2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종합

두 번의 회계연도에서 보여주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율은 세계자연기금 한국본부가 설립 초기의 불안정성을 넘어 보존 프로그램에 집중할 만큼 자립해 나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향후 계획 WHAT'S NEXT

지지 기반 확대

현재 6,000명 이상의 회원이 WWF-Korea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WWF-Korea가 강력한 보전활동 네트워크를 형성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에 공공활동, 디지털 캠페인 및 주요 파트너십을 통해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는 커뮤니티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회원 확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며, 가장 중요한 보전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힘쓸 것입니다.

한국의 시장 변화

지난 60년간 경제대국으로 거듭난 한국은 국제적 비즈니스 리더로도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전자공학부문의 빠른 혁신에 힘입어 선진국으로 자리잡았으며 세계시장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도 잠재적 리더로 꼽히고 있습니다. WWF-Korea는 핵심 보전구역에 초점을 맞추며 한국의 IT, 금융, 화장품, 유통 및 식품 업계 등 분야별 리더, 특히 시장을 변화시킬 잠재력을 갖춘 리더들과 협력할 계획입니다.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키고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보전 성과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자연이 재생하는 속도의 2.5배로 자연자원을 소비하고 있어 세계 평균인 1.5배를 넘어서 자연자원을 더욱 더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연과 인류에 엄청난 부담이 발생하고 그 미래 자체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및 소득 증대와 함께 인류의 수요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UN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40년간 필요한 식량의 총량은 지난 8,000년간 생산된 총량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WWF-Korea는 어떻게 하면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 연료, 섬유 등 원자재 수요 증가를 충족하면서도 담수를 보전하고 기후를 안정시키며 깨끗한 공기와 야생지역을 후세에도 물려줄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WWF-Korea는 생물다양성, 수자원, 기후와 가장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 총 15개의 핵심 원자재에 역점을 두고 자연보전에 가장 중요한 지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원자재는 수억 명의 생계와 식량공급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지구상에서 가장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 원자재들이 환경 및 사회경제적 혜택까지 고려한 좀 더 나은 방식으로 생산되는 일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목화, 목재, 수산물 및 팜유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생산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약 500여 개 기업이 주요 원자재 시장의 70% 가량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생산기준을 따르는 기업의 수가 임계량에 도달하게 할 수 있다면 원자재시장에서 지속가능성을 보편적 가치로 삼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WWF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핵심 지역 및 생물종에 영향을 미치는 원자재 인증 이니셔티브 수립에 관여해왔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시장 변화' 이니셔티브를 통해 실시해온 것이며 향후 한국에서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관련된 인증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계산림책임관리회(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세계산림책임관리회(FSC)는 1993년부터 전세계 산림의 책임 관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FSC 인증은 산림 제품의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를 이어주고 소비자가 책임을 다하는 구매결정을 내리도록 함으로써, WWF가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파괴를 완화시키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계해양책임관리회(Marine Stewardship Council, MSC)

세계해양책임관리회(MSC)는 1999년부터 자연산 수산물의 책임 관리를 인증하고 지속가능한 수산물의 세계적 유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수산물 시장을 지속가능성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MSC의 자연산 수산물 인증계획은 글로벌 수산물 시장을 계속해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25,000개 이상의 수산품이 MSC 에코라벨을 받았습니다. 또한 335개 이상의 어장이 MSC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MSC





인증 어장은 매년 총 1,000만 톤 이상의 수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는 전세계 자연산 수산물 어획량의 약 11%에 해당합니다.



세계양식책임관리회(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 ASC)

세계양식책임관리회(ASC)는 WWF 양식에 관한 전문가위원회(Aquaculture Dialogues)에서 처음 개발된 책임 양식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관리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ASC는 세계적으로도 책임 양식 수산물에 부여되는 선도적인 표시 및 인증 제도로 발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면화 이니셔티브(Better Cotton Initiative, BCI)

2005년 수립된 더 나은 면화 이니셔티브(BCI)는 더 나은 면화 생산 관리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면화 생산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대폭 줄이고 전세계 대규모 및 소규모 면화 재배 농부에게도 더 많은 사회적,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Korea Ecological Footprint Report)

지구생명보고서는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각 나라에서 그리고 각 지역에서 정책 및 제도에 참고하기에는 전 세계적인 범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WWF-Korea는 한국 환경에 대한 더 나은 이해를 위해 전문가 및 파트너 네트워크와 함께 한국의 생태발자국에 관한 상세 보고서인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를 통해 국가 고유의 '생태발자국' 보고서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2년에 걸친 사례연구 보고서를 개발해 한국의 생태건강 현황에 관한 심층분석결과 및 실용적 정책 권고안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보고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 정부가 지속가능한 정책을 낼 수 있는 참고 자료
2. 기업이 기업의 생산 및 운영 방식을 고려할 때 지속가능한 방식을 택해야 할 근거 마련
3. 일반 대중들의 일상 생활습관이 지구에 어떠한 부담을 가중시키는지에 대해 알림
4. 각 정부/기업/일반인의 현명한 소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림
5. 환경 현안에 대해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하기 위함
6. 학계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하고 의견을 교환하여 풍부한 대화의 장을 열기 위함
7. 생태발자국 관련 환경 보전 사업을 구체화하기 전, 최우선 과제를 알아보기 위함

한국 생태발자국의 주요 요소들을 분석해보고,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탄소가 발생하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영향을 자연자원, 생물다양성과 연관지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즉 도시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비롯하여 에너지, 식량(특히 수산물), 물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 기업, 시민사회 등 생태발자국 감축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례들 또한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연구를 통해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을 한국 실정에 맞게 해석하여 대중의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로써 더욱 넓은 범위로 '지구는 하나라는 시각'을 보급할 방법을 강구하고 지역적 환경 네트워크 및 행동을 강화하여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한 해양 보전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에 있어 바다는 매우 중요한 생태지역입니다. 식량 자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교육의 장이자 수많은 해양 생물의 서식지입니다. WWF-Korea는 2016 회계연도에 한국을 위한 다년간의 해양프로



그럼 전략을 개발함으로써 WWF의 글로벌 해양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속가능한 어업 및 수산업의 토대 마련. 그 일환으로 수산업의 이력추적성 (traceability)을 개선하고 불법어업(IUU) 근절하는 등 전반적 어업 정책 및 관리 체계를 개선. 이에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한국 해양수산 기초조사 보고서를 발간했으며 관련 정책 및 입법 활동에 참여.
2. 대형 수산업체 및 유통업체가 수산물시장을 지속가능성 방향으로 이끌도록 촉구함으로써 한국에 MSC 인증 제품을 도입.
3. 지역 NGO, 정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확대를 통한 해양보호구역(MPA) 관리 개선. 황해생태지역(Yellow Sea Ecoregion) 프로그램 및 생물다양성 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관련 해양생물다양성 활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4. 한국 해양수산 기초조사 보고서, 해양생명보고서(Living Blue Planet Report), 해양경제 되살리기 (Reviving the Blue Ocean Economy) 등의 해양 보고서 발간을 통해 해양 보전에 관한 정책 의제 확대.



재생에너지 지지

에너지 생산을 위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소비하는 일은 인간의 단일활동 중 대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력생산을 통해 연간 약 230억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데 이는 초당 700톤 이상의 막대한 양입니다. 특히 석탄은 생산 에너지 단위당 천연가스에 비해 70%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함으로써 대기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기후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지만 아직은 기후변화로 최악의 결과를 맞는 것은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행동한다면 기후변화의 위험에 대비하고 기후변화의 가장 큰 원인인 각국 및 세계의 에너지 선택 및 사용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WWF는 지역사회, 기업 및 정부기관과 함께 청정에너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함으로써 한국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멸종위기종 보전

특히 아시아에서 상아, 코뿔소 뿔 및 호랑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야생동물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위험한 범죄조직의 주도로 야생동물이 마약이나 무기처럼 밀매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거래범 죄자들은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와 같은 거래가 저위험/고수익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거래는 연간 최고 100억 달러에 달하는 이익을 거두며 전세계 불법 거래 중 다섯 번째로 높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WWF는 야생동물 범죄를 멈추기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네트워크의 힘과 파트너 및 정부에 대한 영향력, 회원들의 열정적 참여를 통해 야생동물 위기 해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난 수년 간의 보전 성과가 무위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의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래, 호랑이, 두루미 등 한국 및 기타 동북아에서 개체 수 보존 위협에 처해있는 야생동물에 대한 인식 증진
2. 야생동물 제품 구매하기 전에 의문을 갖고 생산방식을 확인하도록 촉구함으로써 불법 야생동물 부위 및 제품 수요 감소 도모
3.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물을 개체 수 보전 전략 고안, 프로젝트 지원 및 참여 - 예: 무장한 밀렵꾼에 맞서는 최전방 요원의 적절한 장비장착, 훈련 및 보상을 보장하는 등

WWF는 학계, 타 보전기구, 지역사회, 기업, 정부 등 다른 파트너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WWF의 전문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을 정보에 기반한 글로벌 관점에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NASA

인류는 지구 1.5개(1.5 planets)에 해당하는 자원을 소비하고 있으며 특히 한국은 지구 2.5개의 자원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단 하나뿐이므로 보다 현명한 자원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숫자로 본 WWF

1961/2014

WWF는 1961년 설립되었으며
한국본부는 2014년 첫 사무소를
열었습니다.

+100

WWF는 100개 이상의 국가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000

5,000명 이상의 회원이
WWF-Korea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2

WWF-Korea는 두 가지 주요
보전 범주, 즉 '생태발자국 감소'
및 '생물다양성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00%
RECYCLED



Why we are here

To stop the degradation of the planet's natural environment and
to build a future in which humans live in harmony with nature.

panda.org/lpr

